

남녀대협 의장을 결의하며

생각해보면 참으로 짧은 시간이었던 같습니다. 중학교,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수많은 생각 그리고 대학교에 오면서 무참히 깨어졌던 나의 상식 아닌 상식들. 그 후 여학생운동을 배우기까지... 그런데 광주전남지역의 여학생운동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고 결의하고 보니 운동을 시작할때의 결의, 96년 일본 대사관 앞 수요집회를 같던일, 최루탄 가스를 마시며 눈물과 콧물을 짜면서도 그 자리를 버티고 시민들을 만났던 기억들, 연대항쟁 때 잡혔던 기억...주옥같은 추억들이 떠오르게 되는군요.

이제 제 운동의 결실을 맺을 98년. 어느 해보다도 제 생애 최고의 해로 남을 98년. 5만 여학우와 10만 청춘과 함께 반외세 자주화 투쟁의 해로 만들어 나갈 98년. 그 첫 포문을 남녀대협 의장을 결의하면서 시작하렵니다.

저는 1976년 10월 3일 물 맑고 산 좋은 지리산 기슭에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공무원 생활을 하신 아버님과 충실히 가정주부생활을 하셨던 어머니 사이에서 3녀 1남 중 둘째로 태어났구요. 3살 위인 언니와 4살 아래인 여동생, 6살 아래인 막둥이이고 그 막내가 아들인 귀남이 집이랍니다. 구례에서 6살때까지 살다가 바로 광주로 와서 구례에서 살때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어릴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고모, 삼촌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엄하고도 엄한 무척이나 가부장제적인 집안에서 컸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까지 수줍어하고 내성적인 저의 성격은 거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또 성격 활발한 친구들과 자주 지내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좀 더 활달해지게 되었고 반 임원도 하면서 내성적인 성격이 점차 줄어들어 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저는 선생님들의 말씀이라면 꼬박하고 죽을 만큼 모범생이었습니다.(하하 저 혼자만의 착각은 절대 아니었구요. 진짜로 모범생이라고 불리었다구요).

하지만 저도 무언가를 배우고 사회에 반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국어선생님이 발령받아서 오셨는데 대학을 갓 졸업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선생님 밑에서 국어를 배웠는데 국어보다는 음악과 토론을 더 많이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사노라면, 작은 연못 등의 민중가요-그 때는 조금 재미없는 가요인줄 알았죠-도 배우고 광주민중항쟁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랬답니다. 광주민중항쟁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한 조가 조사를 해와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모두는 충격이었죠. 빨간색 표지로 된 책자였는데 사람들 총 맞은 부위, 상처하며 죽은 시체 모습 그대로 실어놓은 충격의 빨간책! 이 책이 반에서 공개되자 5.18때 나도 이런 이야기 들었다면서 너도 나도 이야기 하기 시작했고 온 학교에 이 이야기와 책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끄적했지만 뭔가 새로운 사실을, 책에는 나오지 않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무척 흥미를 유발시켰나봐요. 그리고 전 그 뒤로 국어선생님을 가장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이엄마가 되었지만 그 때는 저의 아니 다수의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국어선생님! 아마 저에게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게 해준 사람중에 첫 번째 사람일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보내고-광주민중항쟁이란것도 거의 기억속에 묻혀 지내버렸지만-고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 해는 언니는 대학교로 나는 고등학교로 동시에 진학하게된 경사가 겹친 해였죠.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우리집안에서 언니가 대학생활을 처음하게 되면서 대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생활을 엄마와 아빠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는 교육동아리에 들게 되었고 그걸 말리려는 부모님과 마찰

도 커졌습니다. 언니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속 터놓고 지내는 사이라서 언니는 언니의 모든 생활을 저에게 이야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늦게 매캐한 냄새와 함께 들어오는 횃수가 잦아지고 부모님과 싸우는 횃수는 더 잦아지기 시작하면서 전 언니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뜰이나 힘든 고등학교 생활에 부모님의 걱정을 더욱 가중시키는 언니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언니가 하는 일-운동이죠-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93년도에 언니의 제일 친한 선배였던 이경동이라는 선배가 임용고시 철폐, 교육재정확보를 외치며 분신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니는 더욱 더 당당히 운동의 길을 가게되었고 저는 그럴수록 언니의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운동의 길에 영향을 주었던 두 번째 사람일거란 생각이 듭니다.

95년 전남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합격자명단을 확인하러 엄마랑 함께 전남대학교에 발을 들여놓고 합격을 확인한 순간 엄마랑 했던 3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첫째, 데모하지 말 것. 둘째, 연애하지 말 것. 셋째, 남자랑 단 둘이 있지말 것. 지금은 비록 다 어겼지만은요. 고등학교때 언니에 의해서 받은 그 나쁜 인상과 엄마와의 약속 때문에 전 데모라면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그 대신 술을 좋아해서 새로배움터를 할 때부터 4월, 5월달까지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을 마실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술 먹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하루하루 먹어도 속만 버리게 되었고 아무런 낙도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 때 저에게 나타났던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단대 여학생회 부회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배는 후에 제 운동의 길에 영향을 준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선배를 따라 5.18 도청집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국어선생님과 함께 토론했던 그 기억과 함께 도청을 꼭 매운 시민과 학생인파들. 전 놀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 전 그 선배의 도움으로 여학생회 소모임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점점 많은 것을 배워 나가게 되었습니다. 1학년때는 수업을 빠뜨리고서도 투쟁이 있다면 나갈 정도로 열정적으로 모든 투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95년 통일원년으로 서울에서 판문점진격투쟁으로 전개되었던 통일투쟁이 생각이 납니다. 처음 본 백만개의 라이터 불빛, 수많은 학우들, 눈물나는 최루연기속에서 날 도와주던 이름모를 한 남학우, 12개의 페퍼포그 앞에서 쏟아지는 잠을 참지 못해 졸았던 일, 땀 냄새 진동하면서 시민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쳐댔던 서울 지하철, 내려오는 길이 위험하다 해서 몰래몰래 내려오던 그 길..

또한 5.18특별법 제정투쟁을 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5월부터 10월 까지 근 6개월에 달하는 동안 '특별법 제정, 특검제 실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이 구호를 외쳤던 우리 투쟁. 시민들의 박수, 술 드신 아저씨의 노래소리, 아주머니들이 공짜로 주시는 물,음료수 그리고 특별법이 제정되던 날 그 날의 집회도 기억이 납니다. 되지 않을 것만 같이 지루히 계속되던 투쟁이 어느 새 현실이 되어 성과물로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리둥절해서 아무말도 못했죠. 그 다음날 '전직 대통령으로서 첫 구속이라는' 앞구절과 함께 신문과 방송에서 계속되는 보도들. 참 뿌듯하더라구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기억. 그건 범민족대회 기간에 수요집회에 참여했던 것이었습니다. 전여대협 일꾼들이 대표로 일본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대사관으로 통하는 지하철역부터 막아서는 전투경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20명 정도의 학우들만 일본대사관까지 가도록 허락했고 저도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의 기억은 없습니다. 일본대사관앞에 도달하자마자 지하철역을 막아서고 있는 똑같은 전경들을 보고 그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시위하고 계시는 할머니들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려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구마구 울었던 기억만이 남습니다.

96년도 여학생회 부회장을 했던 해입니다. 처음으로 간부를 하다보니 처음부터 뼈격뼈격 저의 할 일도 못 찾으면서 방황하기도 했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속을 썩인것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

학기의 저의 미적미적 생활을 결의높게 잡아 준 것은 95년도에 한번 경험했던 수요집회 상경투쟁이었습니다. 수요집회의 감동을 남다르게 느낀 저는 단과대에서 다른 두 명의 학우와 함께 96년 5월 29일 상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날 울지 않았습니다. 그 날은 눈물을 거두고 두 눈 똑바로 뜨고서 전투경찰들을 바라보았고 전투경찰이 아닌 일본정부를 그리고 무능력한 우리나라정부를 바라보았습니다. 화염병이라도 던지고 싶고 쇠파이프로 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할머니들은 안 그럴까 싶어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실천투쟁에 임했습니다. 처음 올라가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수요집회였습니다.

또 다른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대항쟁이었습니다. 뭔가 해보고자 서울로 향했고 거기서 열심히 통일투쟁을 벌여내고 지을 수 없는 기억 9박 10일간의 투쟁들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그 뜨거운 동지에 하나로 버티었던 9박 10일. 빨갱이로 매도되고 폭력집단으로 매도되면서 억울하고도 답답하게 보냈어야만 했던 연대항쟁. 전 거기서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나와서 불구속이라는 딱지를 달게 되었지만 언젠가는 훈장으로 칭송받게 될 그날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97년은 저에게 있어 더 큰 여학생운동을 가르쳐준 해입니다. 공과대학 여학생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항쟁 이후로 집안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전 운동하고 있는 것을 집에 말하지 못했으니까요. 언니처럼 또 한번의 아픔을 부모님께 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것 저것 사업을 해가면서 여학생운동이 뭔지 운동이라는 것이 뭔지 점 점 알아가게되었습니다. 옛그제 같은 일이 생각이 납니다. 97년 공대 여학생회장으로서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있게한 가장 큰 비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철이 들었다고 해도 되겠죠.

97년 10월 2일.

저의 일생을 결정지었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총여학생회장으로 나설 것을 결의하였던 날이었습니다. 선거투쟁, 여학생회에 대한 다시 원초적인 고민들, 선배들도 똑같이 들었을 학우들의 비판의 목소리, 그러나 아직도 여학생운동은 변한 것이 없는 것 같다? 동지들의 사랑을 많이 느꼈던 선거기간이었습니다.

지금은 가끔 그 날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졸업을 하고도 간부로 결의한 사람들의 신념과 빵에 잤다오고 나서도 결의를 한 사람들, 수배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간부로 결의한 사람들의 강인함을 잊어버리고 일상에 젖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속자와 수배자의 상황을 항상 보면서 저 자신을 채찍질하려합니다. 아직도 5만여학우의 대표로보다는 8천여학우의 대표로서가 더 익숙하지만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난관에도 전 이겨 나갈 수 있으리라고 감히 여러분앞에 결의내고자 합니다. 결의서가 어떤 결의보다는 저의 운동과정을 평가하고 총화했던 그러한 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판단만이 남았습니다.

11기 남녀대협을 세우고자 나선 김수진